

성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을 이루며 그 백성들의 정체성, 목표, 가치, 윤리,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근본이 된다. 이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이 언약의 프리즘을 통하여 그들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인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고 완성된다. 이 언약 속에 중심 요소로 등장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는 신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 언약은 축복과 저주보다 상위 개념이며 후자는 언약의 빛 속에서 늘 이해되어야만 한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본질적인 관계가 상벌관계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부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자식이 도리에서 벗어났을 때 부모가 그를 돌이키기 위해 저주처럼 보이는 징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 속에서 '저주'는 파멸과 단절을 스스로 이루어 가는 주술적인 능력이거나 마귀로부터 오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서 올바른 관계를 복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저주'를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적인 믿음은 본질적으로 왜곡될 것

이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장차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다보며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저주를 열거하면서도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라" (신 32:36).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역사의 희망이 있다. 최근의 여러 번역들은 '하나님의 후회'를 '하나님의 연민'으로 새롭게 제시한다(표준새번역, 공동역, NIV, RSV, NRS 등; 시 135:14을 보라).

언약은 축복과 저주보다 상위

개념이며 후자는 언약의 빛 속에서 늘

이해되어야만 한다.

3.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저주의 형식

소위 가계저주론자들은 성경의 잡다한 구절에서 '저주' 본문을 옮겨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찾아볼 필요를 느낀다. 블랭크는 구약 성경에서 (1) 단순 저주 공식, (2) 복합 저주 공식, (3) 자유로운 저주 형식이란 세 가지 유형의 저주 공식을 발견한다(Blank 1950~51). 첫 두 형식은 대부분 세속적인 소원으로 나타나며 세 번째 것은 저주를 기원하는 기도(imprecatory prayer)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주 소원 형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1) 단순 저주 공식

이 공식은 '저주하다' ('arar)라는 동사의 칼